

새로운 복음화를 위해 매진합시다

편집 및 발행 | 천주교대구대교구 문화홍보실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3동 225-1 (053)250-3052, 3048 <http://www.daegujobo.or.kr>



예수님께서 유혹을 받으신 장소로 전해지는 '유혹의 산' 수도원

† 오늘의 전례

예수님께서서는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시어, 유혹을 받으셨다.(루카 4,1-13 참조)

하느님의 은총으로 사람이 유혹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예수님께서서는 악마에게 유혹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서 유혹을 물리치신 것은 하느님 말씀의 능력이었습니니다. 회개와 보속의 시기인 이 사순절에 우리도 살아있고 힘이 있는 하느님의 말씀으로 무장합시다.

제1독서 신명 26,4-10 **제2독서** 로마 10,8-13 **복음** 루카 4,1-13

입당송 나를 부르면 나 그에게 대답하고 그를 해방시켜 영예롭게 하리라.
오래오래 살도록 그에게 복을 내리리라.

화답송 ◎ 주님, 환난 가운데 저와 함께 계시옵소서.

영성체송 사람은 빵만으로 살지 않고, 하느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유혹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

김재호 마티아 신부 | 구평본당 주임



살이 찌서 건강에 적신호가 켜지기 시작합니다. 적신호가 켜지면 그 동안의 삶의 습관들을 돌이켜보고 건강을 다시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하게 됩니다. 꾸준히 운동을 하든지 아니면 다이어트를 하게 됩니다.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 일단 텔레비전을 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저녁 시간 때만 되면 항상 군침 도는 음식들이 소개가 됩니다. 그리고 10시 이후에는 라면과 맥주 등의 다이어트를 방해하는 각종 음식들의 광고가 쏟아집니다. 정말 참기 힘든 유혹들입니다.

사순시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사순시기가 시작되면 주님의 수난을 기억하면서 우리 또한 주님의 수난에 동참하는 자세로 살아가며 부활을 맞이할 준비를 해 나갑니다. 그렇게 사순시기를 맞이해서 여러 가지 다짐들을 하게 되는데, 이상하게 잘 지켜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금육”입니다. 말 그대로 금육인데 이상하게 금요일만 되면 고기(肉)를 먹게 되거나 먹고 싶어집니다. 금요일에 고기가 당긴다고 해서 “금육”일까요...? 아무튼 많은 유혹들이 생깁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서는 40일간의 단식을 마치치고 몸과 마음이 지칠 대로 지친 상태에서 악마의 유혹을 받으십니다. 그런 유혹 앞에서 예수님께서서는 “단호함”을 보여주십니다. “사람은 빵만으로 살지 않는다. 주 너의 하느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주 너의 하느님을 시험하지 마라.”라는 성경말씀을 들어 악마의 유혹을 단호히 거부하십니다. 당신을 시험하는 달콤한 말 앞에 고개 숙이기보다는 오히려 하느님의 말씀을 내세우며 당당하신 모습,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음에도 그것이 바른 길이 아니기에 가지 않는 모습... 예수님의 그러한 모습은 일상의 유혹 앞에 한없이 작아지는 우리 자신을 다시 한 번 되돌아보게 합니다.

우리 안에 끝없는 욕망은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누구나 다 하는 것이니까’, ‘이 정도는 괜찮겠지’, ‘다음에 하지 뭐’, ‘이번 딱 한 번만.’ 결국 우리에게 남은 숙제는 그렇게 다가오는 유혹에 맞서느냐 무릎을 꿇느냐 하는 것입니다. ‘조금만 더’, ‘한번만 더’. 그렇게 욕망이 넘쳐나는 이 시대에, 꿇고 버린다는 것... 그리 쉽진 않겠지만, 어찌면 어리석게 보일지도 모르겠지만, 우리의 참된 행복은 그렇게 ‘물러서지 않는 용기’를 통해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물러서지 않는 용기는 바로 주님의 이름을 받들어 부르는 사람이며 그러한 사람은 바로 사도가 말씀하신 것처럼 모두가 구원을 받을 사람입니다. 새로운 마음을 다지며 시작하는 이번 사순절, 일상의 유혹 앞에 고개 숙이지 않고 당당하게 하느님을 내세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내게 다가오는 헛된 유혹들, 하나라도 버릴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악마는 이번만이 아니라 다음 기회를 늘 노리고 있기에... **김재호**

“우리는 하느님의 파견을 받아 그리스도 안에서 말합니다.” (2코린 2,17)

예언자들을 통해 말씀하신 하느님께서 마지막 때에 이르러 아드님이신 예수님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느님께서 당신을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이시는 것을 계시라 합니다. 예수님을 통해 완전하게 이루어진 하느님의 계시는 우리에게 성경과 성전을 통해 전달됩니다.

계시의 두 원천인 성경과 성전

성경(聖經)은 성령께서 주시는 영감에 이끌려 저술된 책으로서 하느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계시가 전해지도록 섭리하신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세우신 교회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 성경을 쓰고, 또 그것이 하느님의 숨결이 닿은 거룩한 책이라고 받아들인 것입니다. 성전(聖傳)은 예수님의 몸인 교회의 거룩한 전통을 말하는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계시의 내용들과 또 교회가 성경을 쓰고 읽고 묵상하고 실천해 온 경험들을 포함합니다. 성경과 성전은 같은 하느님께로부터 나온 동일한 계시의 두 통로입니다.

성령 → 교회의 신앙 체험 → 성경과 성전

예수님께서 당신과 함께 친교를 나누던 제자들을 당신 기억의 증인들로 세상에 파견하셨고 또 거기에 성령이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계시는 성령의 작용을 통하여 교회 안에서 전달됩니다. 사도들은 성령의 인도를 받아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이끌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들의 증언과 증거는 교회의 삶을 통해 체험되는 하느님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체험이 글로 남겨져 성경을 이루기도 하고, 또 전통이 되어 성전으로 보존되기도 한 것입니다.

말씀에 봉사하는 교회의 직무인 교도권

기록된 하느님의 말씀(성경)이나 전해지는 하느님의 말씀(성전)은 모두 교회의 생활 가운데 영감을 불어넣으시고 힘을 주시는 성령의 작품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계시의 원천들을 권위 있게 해석하는 일 또한 성령의 궁전인 교회의 임무입니다. 이 임무를 우리는 교도직 또는 교도권이라고 말하는데, 사실 교도권은 권한이기에 앞서 직책입니다. 교회의 가르치는 권한은 하느님의 말씀을 보존하고 성실히 실천하기 위해 있는 봉사 직무이며, 오직 예수님의 파견에 의해 받게 되는 임무입니다. 성경과 성전이 모두 성령의 인도를 받는 교회의 신앙 체험으로부터 나온 것이므로, 그것을 이해하고 묵상하고 실천하는 일도 우리를 예수님의 몸이 되게 하시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



“신부님을 실제로 처음 본 사람?”

이영동 치릴로 신부 | 교구 학교복음화 담당



지난 연말에 경주에 있는 공립 여자중학교에 초청을 받아 특강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 학교 교장선생님께서서는 다른 학교에 계실 때부터 성직자를 초청하여 학생들에게 유익한 강의를 들려주고픈 마음이 간절했었다고 합니다. 요사이 학생들의 현실을 보니 종교적인 접근 없이는 인성교육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시고는 그런 마음이 더욱 드셨다고 합니다. 교장선생님이 가톨릭신자이시다보니 신부님이나 수녀님을 찾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중학교 한 학년이나 전교생을 대상으로 강의를 할 분을 찾지 못했습니다. 흔쾌히 응해주시는 분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교구에서 학교복음화담당 신부가 발령 나는 것을 보시고는 저에게 연락을 하였습니다. 불러가서(?) 훈계(?)를 많이 들었습니다. “제발 신부님들이 학교현장에 가서 특강도 좀 하시고 신자 아닌 일반 학생들을 만나는 시간을 많이 가지시면 좋겠다.”는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가톨릭 학교의 교사 경험도 있고 해서 큰 부담이 없다고 큰 소리는 쳤지만, 사실 일반 학교에서 그것도 중학생을 대상으로 2시간 정도 특강을 해야 한다니 무슨 내용으로 어떻게 할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일반 이야기들은 많이 들었을 텐데, 무슨 내용을 같이 나누면 좋을까? 종교 이야기나 하느님 이야기를 하면 아이들이 잘 들어줄까? 아니 일반학교에서 그렇게 해도 되는가?’ 그러다가 용기를 내었습니다. ‘신부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는가, 하느님 이야기 빼면.’ 그래서 나름대로 신앙과 하느님

의 말씀을 잘 엮어 강의를 했습니다.

강의를 시작하면서 가톨릭 신자들이 얼마나 있는지 물어보았습니다. 10여명 남짓했습니다. 통계대로 역시 신자학생이 별로 안 되었습니다. (불교의 강세 때문에 경주지역의 복음화율은 5% 미만입니다.) 그리고 또 물었습니다. “신부님을 실제로 처음 보는 사람 손들어 보세요.” 200명 학생 중에 반 이상이 신부를 실제로 처음 본다고 했습니다.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손들기 싫어서 안 든 학생까지 고려한다면... ‘신부들이 평상시에 신부복을 잘 입지 않아서 못 봤나, 아니면 신부들이 학생들 있는 곳에 가지를 않았나?’ 짧은 순간에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본당 사목도 중요하지만 일반 학교나 청소년이 모이는 곳에 자주 나타나야 되겠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래도 강의를 마치고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일반학생들도 하느님에 대해서 듣고 싶어하고 또 잘 듣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느님이 주시는 위로를, 예수님께서 주신 치유(힐링)를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겠구나.’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들의 몸과 마음에 하느님의 사랑이 심어져 있음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잘 준비하면 여러 가지 현실로 인해서 가치관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는 젊은이들에게 좋은 계기가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새 학기가 되면 아이들을 만나 세상을 살아가는 기쁨과 우리를 기억해주시고 돌보아 주시는 하느님의 사랑을 같이 나눌 시간을 또 많이 기대합니다. **필문**

은밀한 유혹

주일학교에서 돌아온 호기심이 많은 한 소년이 작은 목공소를 하고 계시는 할아버지를 찾아 달려 들어와서는 숨을 돌릴 겨를도 없이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성당에서 아주 중요한 것을 배웠어요. 악마가 우리를 유혹해서 하느님과 멀어지게 하고 죄를 짓게 만든대요.” “그래 아주 중요한 것을 배웠구나.” 할아버지가 하던 일을 멈추고 어린 손자를 보고 흐뭇해 하셨습니다.

“얘야, 그런데 악마가 우리를 어떻게 유혹하는지는 알고 있니?” 손자에게 질문을 한 할아버지는 이내 구석에서 굵은 장작 하나를 갖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성냥을 그어 장작에 불을 붙이려고 몇 번을 시도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장작에는 불이 붙지 않았습니다.

“자 보아라. 이렇게 굵은 나무에는 아무리 성냥으로 불을 붙이려 해도 안 되지 않니? 그런데 이제 보렴.” 할아버지는 바닥에서 대팻밥을 굵어모아 거기에 불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작은 나무토막을 놓아 더 크게 불을 일으킨 후 그 굵은 장작을 없었습니다. 그러자 비로소 그 굵은 장작도 타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호기심 어린 눈으로 이를 지켜본 손자에게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대팻밥은 금방 불이 붙으니까 먼저 대팻밥에 불을 붙이고 그 불에 작은 나무를 얹어 가면서 불길을 더 크게 만드는 거야. 그러면 결국 굵은 나무도 타 들어가지 않니? 바로 이와 같이 악마는 우리를 별것 아닌 작은 일부터 서서히, 그리고 은밀히 유혹해 온단다.”

가랑비에 옷 젖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렇듯 악마의 유혹은 아주 조금씩 은밀하게 다가와 우리를 그리스도와 멀어지게 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이런 유혹을 각성하고 있습니까?

금주의 성인



성 폴리카르포(2월 23일)

사도 요한 성인의 제자로 사도교부 중의 한 분이셨던 폴리카르포 성인께서는 스미르나(오늘날 터키)의 주교가 되시어 이단을 배격하고 정통 신앙을 수호하셨다. 순교록에 의하면 성인께서는 화형을 선고받고 장작더미 위에 올랐으나 불길이 성인을 피해 가자 창에 찔려 순교하셨다고 한다. 성인께서는 필립비인들에게 보내는 열일곱 장의 편지를 남기셨는데 우리에게 교회의 가르침을 성실히 따르고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 것을 당부하시는 내용이 담겨 있다.



2013년 성경통독피정

쉐마, 이스라엘(신명 6,4)

말씀을 듣는 순간 새로운 세상이 보입니다.

"돌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으리라." (이사 40,8)

교구 사목국 성서사도직에서는 교구민들이 성경을 통독하는 데 도움을 드리고자 아래와 같이 성경통독피정을 마련했습니다. 10회의 1박2일 피정을 통해 역사 순으로 신구약 전체를 읽으실 수 있습니다. 읽기 전 초청 강사들의 강의로 성경을 읽으시는 데 길잡이를 제공해 드립니다.

베네딕도 영성관에서 침묵의 분위기 안에서 말씀하시는 하느님을 만나고 포교 베네딕도 수녀회의 전례를 통해 더욱 풍성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일정	차수	피정 날짜	신청 마감
	제 1 차 >>	3월 2 ~ 3일(토~일)	2월 22일(금)
	제 2 차 >>	3월 23~24일	3월 15일(금)
	제 3 차 >>	4월 27~28일	4월 19일(금)
	제 4 차 >>	5월 11 ~ 12일	5월 3일(금)
	제 5 차 >>	7월 27~28일	7월 19일(금)
	제 6 차 >>	8월 31 ~ 9월 1일	8월 23일(금)
	제 7 차 >>	10월 12~13일	10월 4일(금)
	제 8 차 >>	10월 26~27일	10월 18일(금)
	제 9 차 >>	11월 30~12월 1일	11월 22일(금)
	제 10 차 >>	12월 21~22일	12월 13일(금)

장소 _ 베네딕도 영성관(대구시 북구 사수동 133번지) / T. 313-342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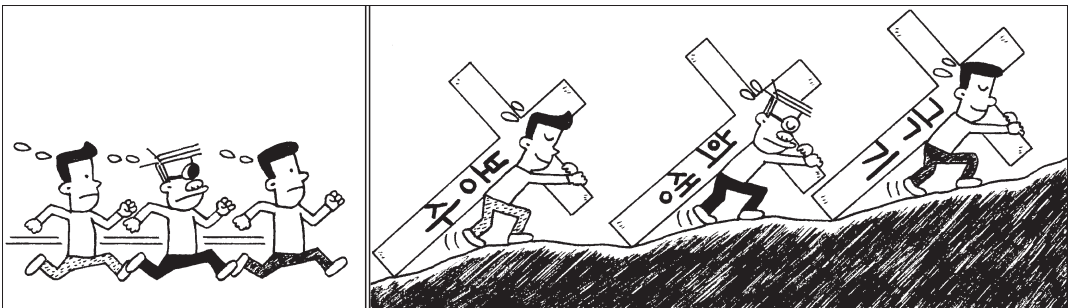
회비 _ 1회 5만 원(10회 신청시 45만 원) / 선착순 60명

신청 _ 대구은행 508-10-448845-1 성서사도직(남희정)

문의 _ 대구대교구 사목국 성서사도직 담당 250-3082, cafe.daum.net/biap

각자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박성규 엘리지오



미사안내

- 대구대교구 가두선교단 월례미사 2월 18일(월) 오전 10시 경산성당
- 2대리구 교정사목후원회 월례미사 2월 18일(월) 오전 10시 30분 범어성당
- 1대리구 성소후원회 월례미사 2월 18일(월) 오전 11시 계산주교좌성당
- 포항지역 군종후원회 미사 2월 18일(월) 오전 11시 죽도성당
- 한티순교성지 후원회 월례미사 2월 18일(월) 오전 11시 한티순교성지
- 성요셉 아버지학교 월례미사 2월 18일(월) 오후 8시 교구청 내 꾸르실료 교육관
- 민족화해위원회 월례미사 2월 23일(토) 오전 11시 성모당

성소 | 피정

섭리 기도 모임(미혼 여성)

일시: 2.24(일) 14:00, 성당성당
문의: 천주섭리수녀회 (010)3940-3635

105차 대구 선택주말

기간: 3.8(금)~10(일), 꾸르실료교육관
대상: 미혼남녀 신자(선착순 50명)
문의: 에밀리아 (010)5045-3116
<http://cafe.daum.net/daeguchoice>

2박3일 무료피정(작은예수회)

기간: 2.22(금)~2.24(일)
장소: 가평작은예수마을(숙식제공)
내용: 모든 질병과 어두움 버리기
출발: 대구시민회관 앞 11:40
문의: 박테레사 (016)646-0583

예수성심전교 젊은이 길찾기 피정

기간: 2.28(목) 18:00~3.2(토) 14:00
장소: 예수성심전교수도회 강화피정집
대상: 35세 미만의 자매들

회비: 4만 원

문의: 로사리아수녀 (010)9330-3104

수도자들과 함께하는 부활 전례피정

기간: 3.28(목) 15:30~31(일) 13:30
장소: 성 베네딕도 왜관 피정의 집
참가비: 13만 원(선착순 80명)
문의: (054)971-0722

교육 | 모집

신난다 첫영성체 교리교사 연수

일시: 3.7(목) 10:30~17:00, 만촌1동성당
준비물: 교사·부모·어린이용 교재
문의: 생활성서사 (02)945-3300
<http://www.biblelife.co.kr>

성체 신심 세미나

기간: 2.22(금)~24(일)
장소: 포교베네딕도수녀원 영성관
이홍근, 하성호, 송재준, 서덕교, 정기모
내용: 현시, 조배, 참회예절, 성사, 안수
신청: 15만 원, (010)5493-1819

젊은이모임 옛 멤버들 모임 및 미사

일시: 2.24(일) 14:00
장소: 곧배뚜알 프란치스코회 수도원
문의: 박상규 신부 (010)5380-8615

가톨릭교리신학원(통신)신입생 모집

원서접수(추가): 2.28(목)까지
과목: 신·구약, 신학일반 (전례학 등)
대상: 평신도, 수도자
문의: (02)745-8339 ci.catholic.ac.kr

가톨릭상지대학교

원격평생교육원 수강 모집

학점은행계 자격증 및 학위 온라인 과정
개강: 3.7(목),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문의: 1577-0361 <http://www.cec.or.kr>

감성과 음악으로 만나는 나

일정: 3.23(토)~24(일), 2차
5.4~5(3차) / 7.6~7(4차)
대상: 18세~34세(미혼 여성)
주최: 예수성심시녀회 교육관
신청: (010)2649-2045

서 부 영 남 내 과
인공신장실 (야간투석)
(공단건강검진, 당뇨, 고혈압, 신장질환)
성 당 못 역 (서부정류장)
3번 출구에서 오른쪽
영남의과대학 외래교수
원장 김 영 진 (안드레아)
☎ 053)656-7533

팍앤신원 이비인후과
진료과목 - 성형외과 · 소아청소년과
의학박사/원장 신재훈(루카), 팍동석(아우구스티노)
코수술 전문병원 (축농증, 비염, 코골이, 코성형)
(1호선 성당못역 3번 출구)
☎ (053)638-7582(차료발리)
<http://www.ksnose.com>

2484 익스프레스
칠 곡 313-2484
서 구 566-2484
달서구 637-2484
수성구 761-2484
한여기(파오로) 011-514-3855

월치과병원
D4m 카페 타초의 치과이야기
Tel. 053)741-1100
지하철 2호선 수성구청역 3번 출구 농협 5층
원장 신수용(루카), 조창식

KCB 고려익스프레스
포장이사전문업체
대표전화 1577-2400
무료전화 080-053-1000
아곡수(아네스) 010-5048-7739

일본성지순례
나가사키/오진/하라토
제1차 2월25일~28일(3박4일)
순례경비 59만 5천원
T. 053)253-3399
(주)성지여행 조철래(유스티노)

新대구정신과
New Daegu psychiatric clinic
불면증, 갱년기 우울증, 불안, 치매
식사장애(거식증, 폭식증), 비만, 스트레스
원장 · 전문의 김 정 윤(라파엘)
지하철 2호선 감삼역 2번 출구 앞
T. 053)566-0364

김영표버섯명가
www.pogokim.com
· 유기농버섯(표고 · 상황) 재배
· 체험 학습(견학 · 교육) 농장
· 버섯요리전문점 (Slowfood)
☎ 053)852-7576 남경화(헤레나)
영남대학교역에서 경산IC 방향 5Km 위치

2013년도 예비신학생 등록 안내

기간: 2.10(일)~24(일)

대상: 사제성소를 희망하는
중1~고3, 대학, 일반

등록비: 2만 원(1년)

문의: 본당 사무실

매년 새로 등록해야 하며 입시
반(고3·대학·일반)은 1년간 빠짐
없이 출석해야 2014학년도 대신
학교 지원 가능합니다.

가톨릭문화관 교육생 모집

천연비누·화장품, 쿼트, 리본공예,
POP, 통기타, 우쿨렐레, 바이올린,
플룻, 오카리나
문의: 476-6211

2013년도 1학기 신학강좌 수강생 모집

영성신학, 윤리신학2, 교회법, 교
회론, 계시현장, 교회헌장, 전례봉
사자교육, 생태영성, 신약·구약성경
과정, 구약성경 입문
다음카페: 평신도신학교육원
문의: 660-5105~6

가톨릭국악예술단원 모집

일시: 3.6(매주 수, 목) 14:00~16:00
내용: 사물놀이, 한국무용, 민요,
전례무용, 난타
문의: (010)2523-2047

가톨릭마라톤동호회 회원 모집

복음, 건강, 사랑!
'달려라.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
<http://www.dgcamara.com>
문의: (010)3866-2812

행사 | 모임

전례꽃꽂이 연구회 월례회

일시: 2.18(월) 14:00

장소: 교구청 별관 대화합실

네이버카페: 대구대교구 전례꽃연구회

교육 | 모집

한국천주교회사 수강생 및 성지순례안내봉사자 2기 모집

기간: 2.22~7.5(매주 금) 19:30~21:30

장소: 교구청 4회합실 / 20만 원

담당사제: 서준홍, 강사: 김길수

문의: (010)2802-2703

대구가톨릭음악원 제25기 신입생 모집

문의: 255-4847

새빛학교 신입생 모집

한글(월, 수, 금)개강: 3.8(금) 10:00
영어(화, 목)개강: 3.12(화) 13:00
한문(화)개강: 3.12(화) 15:00
문의: 교무실 476-3100(교대역)

대학생 필리핀 해외봉사·어학연수

2차: 2.28(목) 출발(8, 12주)
3차: 3.24(일) 출발(8, 12주)
기타: 캐나다 호주 연계 연수가능
문의: 대구청소년수련원 593-1273

외식사업 성공전략 심포지움

일시: 2.19(화) 14:00, 감삼동강당(무료)
내용: 외식트렌드와 스타점포성공비결
대상: 외식 경영자, 관리자, 창업예정자
주최: 대가대 보건의료과학대학원
문의: 850-3177 www.oesikceo.com

채용 | 안내

대구정신병원 보일러 취급 기능사 모집

마감: 2.21(목)
문의: 총무과 630-3001

부활위문품 신청

군중후원회에서 부활절을 맞아 군
위문품을 보낼 예정이오니 신청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감: 2.27(수), 접수: 본당 사무실
대상: 신자자녀 현역사병(의·전경포함)
※훈련병, 교육병, 부사관, 장교 제외

2013 대구주보 광고 추가 접수

서류: 본당 신부님 추천서, 사업자등
록증 사본, 교적 사본, 광고 문안, 사
회복지 관련 사업체인 경우 추가로
교구 사회복지국장 신부님 추천서
문의: 문화홍보실 250-3048, 52

책임보험 1억 가업업체
도우미익스프레스
포장이사·사무실이사·일반이사
대표 양말순(루시아)
591-2424 656-9911
010-2008-2329

ME 66차 부부의
달성피부과
의학박사 / 피부과전문의
손재경(다미아노) 김인주(레지나)
아토피센터·여드름·흉터·주름·탈모
7호광장 두류역 2,3번 출구
T.566-4333

코리아알트만
결혼정보회사
미혼 남녀의
결혼을 상담합니다.
대표 박복순(오티리아)
지하철 2호선 범어역 4번 출구 법원 방향
TEL 743-4488 FAX 744-1594

라식, 백내장 수술 전문안과
대구 연세안과
아이라식^{PLUS}, 안내렌즈, 노안수술
의 학 박 사
원, 연세대의료교수 원장 박 중 원(소시모)
(지하철 1호선 영대병원역 2번 출구)
☎ 626-8881~5

밝은눈안과
원장/전문의 임홍식(라파엘) 장주희(헬레나)
초음파백내장/라섹수술
수술 전문 병원
달성고 맞은편 654-9660
지하철2호선 두류역(9번출구)앞

16년 경력, 보증보험가입
"이현숙의 결혼이야기"
국내 2006.04 매일신문 인터뷰 (피플 "세상속으로")
국제 2009-2010 경북 공무원 교육원 다문화강사
054)458-3223 수산나 010-6571-3385
라스투라결혼정보
구미시외버스터미널 본관2층

인공신장실
신장 전문 수 내과
경북대병원 외래교수 김 진 현(라파엘)
상인역 ☎ (053)642-7575

비염·축농증
코 질환 집중 치료
대구수성점 **코비한의원**
대표원장 이 판 제(루카)
☎ 053-753-9795 수성구청역 4번 출구 앞